

西溪 金聘壽의 尙州 정착과 삶

고 혜 령*

- I. 들어가는 말
- II. 義城 金氏의 世系
- III. 서계 김담수의 상주 정착
- IV. 서계 김담수의 삶
 - 1. 孝와 道義의 실천
 - 2. 飢餓과 憂國
 - 3. 鄉愁와 가족애
- V. 師承 및 交遊
- VI. 나오는 말

국문초록

상주에 의성김씨가 世居하게 된 것은 星州에 살던 西溪 金聘壽일가가 정유재란 이후 이곳에 정착하면서부터이다.

서계 김담수는 의성김씨의 상주 입향조로서 그의 학문과 삶을 통해 학문적 도의적 전통을 세워 의성 김씨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인물이다.

이 글은 의성 김씨의 世系와 김담수의 상주 입향과정, 그리고 서계 김담수의 삶과 사상, 그리고 교유관계를 논한 것이다.

서계 김담수는 영남지방의 유학자로서 처사적인 삶을 살아왔다. 그는 왜란을 겪으면서 飢餓과 가족의 보호, 그리고 전쟁을 지원하는 일에 참여하면서

* 고려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 hesakoh@gmail.com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우국 충정을 발휘하였다.

그의 행적에 대해서 한강 정구, 월사 이정구, 야로 이순 등은 학문에 밝고 실천에 힘썼으며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은거처사로서 살았던 지조있는 선비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는 이익보다는 의리를 중히 여기고 가족과 친족 이웃과 화목했으며 실천을 중시하며 스스로를 수양하는 군자다운 사람이었다. 그는 남명 조식과 퇴계 이황의 학통을 모두 이어받아 이론적 경향과 실천적 측면을 동시에 흡수하였다.

서계와 그의 후계자들은 유교의 덕목과 선비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갔다. 그들의 은일적인 삶과 학문은 낙동강을 중심으로하는 강안학파의 주류를 이끌어 가며 실천적 유학의 면모를 보여주므로서 이런 분위기에서 실학이 배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주제어

西溪, 金鵬壽, 尙州, 임진왜란, 정유재란, 피난. 서계선생일고

I. 들어가는 말

15세기 말부터 16세기까지 몇 차례의 土禍를 거친 뒤 사림들의 성향은 관료형과 은둔형의 두가지 유형으로 양분된다. 유자의 궁극적인 목표가 ‘治國’에 있지만 한편으로 ‘格物致知’로서 자아 성찰에 치중하며 재야에서 활동하는 유자들의 역할이 16세기 이후에는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재야 유자들은 임진 병자 양란을 치르면서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함께 체험하는 가운데 학문과 후진 양성과 민생에 대한 배려와 애정, 나라에 대한 충성을 실천해 나갔다.

鄒魯之鄉이라 불리우는 영남의 성리학은 李滉과 曹植을 중심으로 양대 산맥을 이루어 왔다. 16세기 중엽 성리학자들은 天命이나 인간의 본성과 감정, 또는 마음에 대한 깊은 학문 탐구 결과 나름의 독자적인 성리학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었다. 영남 사림은 낙동강을 가운데 두고 좌에는 퇴계, 우에는 조식의 학풍이 강하게 작용해 왔다.

이항과 조식의 학맥을 잇는 영남 사림들 가운데 서계 김담수는 성주와 안동을 연결하면서 양대 학풍을 아우르는 색다른 존재로 관심을 끄는 인물이다.

임진왜란은 중앙의 정치 경제 변화뿐만 아니라 土族이 지방 정착과 世居에도 큰 변화를 미쳤다. 서계 김담수도 피난의 어려움속에서 성주에서 안동으로 이주하면서 세거지를 옮기게되는 큰 변화를 겪었다. 난리와 피난, 효도와 우국, 자식에 대한 사랑과 훈도 이러한 생의 과정이 그의 저서 『서계일고』로 남아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계일고에 남겨져 있는 그의 시 문을 통해서 임난 시기 지방 사림의 학문과 삶의 모습을 추구해 보려한다. 먼저 서계 김담수의 가문적 배경과 世系를 알아보고 그의 이주 정황, 그리고 이주와 피난 생활중에 나타나는 김담수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子愛, 민생에 대한 우려, 나라에 대한 충정 등을 주제로 삶의 모습, 그의 사승과 교유관계를 통해서 16~7세기 은일적 유자, 처사로 살아간 영남 사림의 한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義城 金氏의 世系

의성김씨는 신라말 경순왕의 넷째아들 金錫을 시조로 한다. 김석은 고려 태조의 외손으로써 義城君에 봉군되어 이후 자손이 의성을 관향으로 삼게 되었다. 그러나 世系가 확인되는 것은 고려시대에 태자첨사 贈尙書左僕射 龍庇부터이다. 용비의 묘소는 의성에 있는데 백성들에게 공덕을 베풀었다 한다. 첨사공 용비는 3남5녀를 두었는데, 장남 宜는 추봉은청광록대부 상서좌복야이고 차남 紘은 의성부원군, 삼남 英은 봉익대부 대광삼중 문하찬성사 판전객시사 겸 집현전직제학을 지냈다. 장남 宜의 후손은 瑞之, 台權으로 이어져 20세손이 鶴峯 金誠一이다.

서계 김담수의 직계 선조가 되는 삼남 英의 아들 之銳는 문과 급제하고 草溪郡守를 지냈으며 병조판서로 증직되었다. 星州 이씨 李兆年¹⁾의 형이 되는 李萬年의 딸에게 장가들었다.²⁾ 이로써 의성김씨 일파가 성주로 들어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지예의 아들은 光富 修德 修福인데, 광부는 문과에 급제하고 봉익대부 순성보리공신호를 받았으며, 병부상서를 지내고 의성군으로 봉해졌다. 공민왕때 홍건적의 침입을 격퇴하고 개경을 수복한 공로로 2등공신이 되었으며, 우왕5년(1379) 8월에 왜구가 침입해 왔을 때 경상도순문사겸 합포원수가 되어 싸우다가 전사하였다.³⁾ 차남 수덕의 아들 用超는 고려 충숙왕때(1329) 출생하여 태종6년(1406)에 졸하였다. 이 때 비로소 용초

1) 이조년(1269~1343)의 본관은 星州. 字는 元老, 호는 梅雲堂·百花軒이며, 隴西郡公 李長庚의 아들이다. 1294년 鄉貢進士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충렬왕, 충선왕의 갈등의 시기부터 충숙왕, 충혜왕에 이르기까지 여원관계의 복잡한 정치 갈등속에서 곳곳하게 유신으로서 고려 왕위를 온전히 지켜내는 입장을 취하였다. 충숙왕이 元都에 있을 때 왕을 도운 공로로 判典校寺事로서 이등공신이 되었으며, 충혜왕이 즉위하자 여러 번 충혜왕을 따라 원나라에 내왕하였다. 정당문학, 예문관대제학이 되어 星山君에 봉해졌다. 충혜왕의 음탕함을 여러 번 간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이듬해에 사직하였다. 誠勤翊贊勳節功臣에 녹권되고 壁上에 圖形되었다. 공민왕 때 星山侯에 추증되고 충혜왕 묘정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文烈이다.(고려사, 열전, 122?, 이조년)

2) 『의성김씨대동보』, 권1, 의성김씨대동보편찬위원회, 1992

3) 『의성김씨대동보』, 권1, p.10~11, 1992

가 성주 내기동에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⁴⁾ 용초는 문과급제하고 가의대부 전라병마절제사로서 여말선초에 태조 이성계를 도와 原從功臣이 되었고 湖南兵馬節度使로 시호는 文節이다. 조선 태종실록에 “전 충청도 병마절제사 김용초가 쭈하니, 빈소에 賜祭하였다. 김용초는 의성현사람인데, 성품이 質朴하고 곧으며, 武才가 있었다. 아들이 셋이니, 金華·金鏡·金鑑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⁵⁾

용초의 손자인 15세 참의공 宗師때부터는 성주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종사의 생몰년은 알수 없으나, 용초 이후 3대째이므로 대략 15세기초 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종사는 아들 4명을 두었는데, 貴孫 仲孫 允孫 季孫이다.

16세손인 귀손은 부사직으로서 星州 倫洞派의 시조가 된다. 아들은 允釐 允迪인데 둘째 아들 윤적은 將仕郎의 직을 가졌고 효행으로 이름이 있다. 윤적의 아들 關石이 바로 김담수의 부친이 된다. 김관석은 호를 四友堂이라 하였고 덕행이 있었으며 영오하고 학문에 독실하였으며 參奉에 천거되어 제수하였으나 나가지 않았다. 관석은 聘老 聘年 聘壽 聘祺의 네 아들을 두었는데 이들 중 제3자인 담수는 정유재란 때 안동지역으로 피란하였다가 상주에 와서 살게 된다. 상주에 의성 김씨가 世居하게 된 내력은 바로 김담수의 피난의 여정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정유재란을 당하여 안동으로 피란 온 김담수는 그 곳에서 모친상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성주지역에 왜적의 종적이 그치지 않아 장례를 모실 수 없어 임시로 상주 중동 낙동강 위에 모시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상주 죽암에 자리잡게 되었다. 상주는 안동과 성주의 중간쯤 되는 거리에 있다. 이리하여 의성김씨 서계공파의 후손이 이곳에 세거하게 되었다.

김담수는 5남 2녀를 두었다. 장남 廷龍은 문과에 급제하여 예안현감을 지내고 이조정랑을 지냈으며 『月潭文集』을 남겼으며, 차남은 廷獻, 3남은 廷稷, 4남은 廷契, 5남은 廷堅으로 생원이었으며 『菊園文集』이 있다. 정룡은 아들

4) 『의성김씨대동보』 권1, 1992

5)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13일 갑진 3번째기사, 화(華)는 『의성김씨대동보』에는 화(和)로 되어있다.

以元, 以亨, 以利, 以貞을 두었는데, 이원의 5대손 東弼은 호를 默巖이라 하였으며 『默巖文集』을 남겼다.

한편 宗師의 4남 季孫은 성주 沙月에서 태어났고 그 아들 從革은 훈도를 지냈으며 종혁의 아들 致精은 승정원 좌승지가 되었다. 치정의 아들 希參은 삼척도호부사를 지냈으며 후에 이조판서로 추증되었다. 희삼은 중종35년(1540) 별시 급제하고 1542년에 홍문관 정자가 되었으며 이어 홍문관 수찬, 부교리 이조정랑, 의정부 檢詳을 역임하고 1545년에 舍人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초연히 지냈다. 호는 七峯이라 한다.⁶⁾ 『칠봉문집』을 남겼는데 중종 인조 명종의 3대 왕조에서 벼슬하여 관직이 통훈대부 광주목사에 이르렀다. 후에 아들 宇顥이 귀하게 되어 이조참판에 추증되었고, 다시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지경연성군관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세자좌빈객에 추증되었다.⁷⁾ 김희삼은 宇弘 宇宏 宇容 宇顥의 4자와 1녀를 두었는데, 우홍은 광주목사, 우굉은 의정부사인 그리고 우용은 대사성 대사헌·이조참판·예조참판을 역임하였다.⁸⁾

성주 운동에서 갈라져 나온 김담수를 중심으로 간략한 의성김씨 世系를 그리면 [표1]과 같다.

6) 김우용, 칠봉선생유사, 『칠봉선생언행록』

7) 개암공행장, 칠봉선생유사 『칠봉선생언행록』

8) 김우용(1540~1603)의 자는 肅夫, 호는 東岡 또는 直峰布衣라 하였으며, 시호는 文貞이다. 寒岡 鄭述와 함께 남명 조식과 퇴계 이황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성주권의 兩岡으로 일컬어지며 수많은 정치적·학문적 업적을 남겼다. 김우용을 중심으로 한 성주의 의성김씨에 관해서는 줄고, 「남명의 '경(敬)'의 정신을 계승하여 실천하다」 『조선의 학문과 정치를 주도한 명가』, 경인문화사, 2016. pp.133~164.

[표1] <義城 金氏 略譜>⁹⁾

시조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의성군 錫 →……	첩사공 龍庇	┌ 僕射公 宜 — 瑞之 — 台權 — (居斗)			
	고려태자첩사	└ 부원군 紘 — 英烈 — ……			
	(묘소:의성)	┌ 찬성공 英 — 군수공 之銳	┌ 의성군 光富		
		└ 판전객시사	└ 초계군수	└ 관사공 修德 — (用超)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 居斗 ……海……	永壽 ……	漢啓……	萬謹 …… (예범)……		
— 用超 —	진사공 和 —	참의공 宗師	┌ 사직공 貴孫 — 允迪 — (關石) —		
태조원종공신	(성주 거주)	└ 사직공 仲孫	└ 사직공 允孫		
		└ 교위공 季孫 — 훈도공 從革 — (致精)			
		(星州 沙月)			
			성주이씨 숙부인		
18세	19세	20세	(21세)		
예범 —	璣 성균생원 — 誠 — 이조좌랑				
關石 — — —	聘老				
(=순천朴坦女)	└ 聘年	┌ — 廷龍(이조정랑) —	┌ — (以元) 진사		
四友堂	└ 聘壽 —	└ — 廷獻	└ — (以亨) 진사		
	(=曹夢吉 女)		└ — (以利)		
	└ 聘祺 …… ……	廷稷	└ — (以貞)		
		└ — 廷契 (생원)			
		└ — 廷堅 ————— (以載)			
		└ — 女 成撥 진사	호 대암		
		└ — 女 洪裕承 진사			

9) 始祖太子詹事府君墓誌, 先君子七峰先生行錄 (『동강선생문집』 17), 東岡先生神道碑銘, 東岡先生行狀 (『동강선생문집』 부록 1), 『義誠金氏開巖公派譜』 1991, 『義誠金氏大同譜』 1992, 『의성김씨세보』, 1802 (국립중앙도서관. 한 고조58-가-5-487)

승지공 致精	— 七峰公 希參	— 伊溪公 宇弘	광주목사
승정원좌승지	삼척도호부사 증이관	— 開巖公 宇宏	의정부사인 — (得可) 奉化 海底
		— 沙溪公 宇容	— (孝可) 出
성주이씨	청주곽씨 貞夫人	— 文貞公 宇顥	— (孝可) 立後 —
숙부인			강음 현감
		상주 金行 女	
		└ 여=李應命	

Ⅲ. 서계 김담수의 상주 정착

김담수((1535~1603)의 字는 台叟이고 호는 西溪, 중종30년(1535) 10월 10일 성주 수륜에서 四友堂 金關石의 3째 아들로 태어났다. 김관석은 將仕郎을 지냈으며 妣는 순천박씨 처사 朴坦의 女로 평양부원군 朴天祥의 후손이다.

일찍이 부친 사우당은 증문 동쪽에다 집을 지어 자제들을 교육하였는데, 김담수는 부친에게서 수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관석은 김담수가 8세때(1542년) 별세하여 일찍부터 모친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다. 어린 나이에 김담수는 형들과 함께 喪禮를 성인처럼 이행하였다고 한다. 장성한 후에는 아버지를 회상하여 통한스럽게 생각하였고, 생신과 기제사 지내는 달이 되면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한다.

김담수 행장에는 그가 13세에 학문을 시작하여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고 비록 병을 앓고 있을 때에도 학문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담수는 당시 성주 출신의 고관으로서 유배되어 온 默齋 李文樞의 지도를 받아 강독하면서 본격적인 학문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목재 이문건은 조광조의 문인으로 당시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성주에 유배되어 있었다.¹⁰⁾ 20세가 넘으면

10) 이문건(1494~1567)의 본관은 星州, 자는 子發, 호는 默齋·休叟. 李威寧의 증손으로

서 김담수가 영향을 받은 인물은 성주 향교의 교관으로 부임한 德溪 吳健과 성주목사 錦溪 黃俊良이었다. 오건은 南冥 曹植의 문인이고, 황준량은 退溪 李滉의 문인이었다.

김담수는 어머니의 권고로 사마시에 응거하여 합격하였다(1564년, 30세)¹¹⁾. 당시 유성룡과 함께 합격하였으나, 더 이상 과거를 위한 공부를 계속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선비로서의 학문의 길에 정진하기 위해 뜻을 굳혔다. 그가 과거 시험공부를 중단한 것은 아마도 건강에 기인한 것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¹²⁾ 누차 병이 생기어 억지로 과거를 보기 어려우므로, 어머니를 설득시켜 자기의 뜻을 펼칠수 있었다.

김담수는 합천의 昌寧 曹氏 贈承旨 曹夢吉의 사위가 되었다. 1562년 장인이 작고하자 장인의 유언에 따라 喪祭, 治産 그리고 자녀 교육의 성취를 당부하는 遺命을 받들어 10년 가까이 상제를 주관하고 처남들을 모두 교육시켜 혼사를 치루는 등 실행에 옮겼다. 16세기 후반기에는 아직도 妻邊의 재산 관리를 위해서 사위가 처가에 가서 생활하는 관례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기간 동안 합천에서 남명 조식의 문하에서 수학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남명선생이 돌아가시게 되어 일찍 스승으로 모시지 못한 것을 한

로, 조부는 李叔生이고, 父는 승문원정자 李允濯이며, 母는 申澹의 女. 일찍이 趙光祖의 문하에서 학업을 닦고, 중종 8년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기묘사화로 조광조가 화를 입자, 문인들이 화를 염려해 조상하는 자가 없었으나 그의 형제는 喪禮를 다했다 한다. 이에 南袞·沈貞의 미움을 받아 樂安에 유배되었다가 사면되어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정원주서에 발탁되었고, 이어서 승문원박사를 거쳐 정언·이조좌랑에 이르렀다. 명종이 즉위하면서 尹元衡 등에 의해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죽친 李輝가 화를 입었고, 이에 연루되어 성주에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성품이 근후했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23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經史에 탐닉하고 시문에 힘쓰니, 뒤에 李滉·曹植·咸守琛·李珥 등이 그의 시문을 즐겨 읊었다 한다. 괴산의 花巖書院에 제향되었다. 그가 남긴 『목재일기』는 시의 사회상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

11) 식년시 생원 3등56위(한국학중앙연구원, 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12) “공은 어머니의 권고 때문에 억지로 과거를 보아 갑자년 사마시에 급제하였으나 누차 병이 생기어 억지로 과거를 보기 어려우므로 어머니께 강청하여 결국 과거를 취소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길을 걸었다.”(이상정, 행장, 『西溪先生逸稿』 권3, 부록)

탄하였다고 한다. 서계 김담수가 남명선생을 만난 것은 남명 생애의 마지막 시기가 되는 것이다.¹³⁾ 그는 합천에 있으면서 황계폭포를 자주 찾았다.

학문의 길에 정진하면서는 성주지역에서 이름이 알려진 東岡 金宇顥과 寒岡 鄭述와 교유를 통하여 그의 학문적 깊이를 더욱 심화시켰다.¹⁴⁾ 동강 김우옹은 선조 24년(1591년)에 조정에서 전국적으로 遺逸을 求하라는 命이 있자 月沙 李廷龜, 白沙 李恒福, 漢陰 李德馨 등과 함께 김담수를 천거하여 繕工監參奉을 제수케 하였다. 그러나 김담수는 늙은 나이에 구차하게 벼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사양하여 나가지 않았다. 이 일로 그는 ‘黃溪處士’라는 호를 받고 黃梅山水와 復戶¹⁵⁾를 허락받았으나 이를 사양하였다.

다음 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노모를 모시고 가야산으로 피신하였는데, 황급한 난리중에 어머니를 모시는 정성이 지극하여 음식 봉양을 잠시도 끊이지 않았으므로 주위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었다. 그후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는 어머니를 모시고 예안으로 갔는데, 큰아들 廷龍이 禮安縣監으로 있어 아들이 부임해 있는 곳에 아버지가 그 고을에 살지 않는 것이 나라의 법이라 하여 안동(화산부 임하현)으로 거처를 옮겼다.¹⁶⁾ 이 시기에 안동의 諸儒들과 從遊하였는데, 退溪의 高弟인 月川 趙穆, 雪月堂 金富倫, 惺齋 琴蘭秀 등이 그들이다. 이로써 김담수는 성주에서 교육받고, 동강 한강과 교유하였으며 합천에서 남명의 학문을 접하게 되었다. 임난이후 안동의 선비들과 중

13) 김담수가 처가인 합천으로 옮긴 것이 정확히 언제 부터였는지 찾기 어렵다. 『默齋日記』에는 1562년 7월까지 김담수의 방문 기록이 보이고, 이후 1563년 11월15일에 김담수가 성주에 왔다는 기사 1건, 1564년 10월 25일에 김담수가 기록이 1건 나온다. 이로 보면, 1562년 가을이후 합천으로 옮겼다고 추정할 수도 있지않을까 생각된다. 처가에 거거한 것이 10여년이라면, 이후 1572년 무렵까지 합천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남명 조식은 1572년에 별세하였다.

14) 동강 김우옹과 김담수는 같은 의성김씨 15세 宗師의 후손으로 김담수는 19세, 김우옹은 20세로서 김담수가 한 향렬 높은 숙향이다.

15) 조선시대 국가가 戶에 부과하는 徭役 부담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던 제도.

16) 『西溪先生逸稿』 권2, 「宣城雜詠序」, "아들이 승으로 부임해 있는 곳을 아버지가 그 고을에 사는 것은 나라의 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花山府 臨河縣의 北村인 鼎井里로 거처를 옮겼다. 그것은 覲親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유하므로써 퇴계학풍과 남명학풍을 골고루 섭취하여 이론과 실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학문체계를 수립하고, 성주 합천 안동지역을 통섭하는 학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안동 피난이후 김담수는 아들 정룡에게 모친을 맡기고, 안동에서 예안으로 왕래하면서 근친하였다. 그러나 1598년 그 해 겨울 노모가 별세하자 병든 몸으로 상례를 치렀다. 아직 왜적의 종적이 그치지 않아 모친의 상구는 성주로 돌아가지 못하고, 상주 위수 남쪽에 임시로 장례를 치루었다. 이 때 상주 죽암에 거처를 정하고 3년의 상기를 마쳤다. 1602년 가을 성주 선산에 성묘차 갔다가 병이 나서 1603년 고향땅 성주에서 별세하였다. 묘소는 어머님 우측에 장사지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김담수의 생애는 화려한 관직도 없고, 특기할 만한 경력도 없다. 과거를 포기한 후 김담수는 항상 문을 닫고 앉아서 조용히 경전을 탐독하는 생활을 하였고, 주변의 학자 지인들과 교류하며, 성리학을 몸체에 익혀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으로 평생을 지냈다.

“공은 천성이 매우 후중하고 행실이 매우 고상하여 일찍 德溪와 錦溪의 문하에서 종유하여 東岡 寒岡 양선생과 도의를 연마하고 효성과 우애를 가정에서 행하고 겸손과 공손한 덕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받았으며 고향에 있을 때는 자신을 굽히어 의리를 지키고 친구를 사귄 때는 어진 사람과 친하며 선행을 즐겼다. 그리고 재물과 이익을 멀리하고 또 무슨 일이든지 묵묵히 행하고 몸소 행실을 닦아 옛날 행실이 돈독한 군자와 같았다.”(李象靖, 行狀, 『西溪先生逸稿』 권3, 附錄)

이상정이 그의 행장에서 쓴 바와 같이 서계 김담수는 학문과 도의, 효행과 우애, 겸손과 의리를 지키는 조선시대 선비의 표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었다. 김담수는 성주의 晴川書院과 상주의 洛巖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西溪先生逸稿』 3권 1책이 전한다.

서계 김담수의 사례를 통해서 조선 중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당하면서

지방 유생으로서 겪은 정치 사회적 상황들과 그에 대한 우국, 자식에 대한 교육과 훈계,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효도의 모습을 생생히 알 수 있다.

IV. 서계 김담수의 삶

1. 孝와 道義의 실천

서계 김담수의 생활에서 효는 가장 근본적인 생활 규범으로 나타난다. 8세라는 어린 나이에 친상을 당한 후 모친의 손에서 자라면서도 부모에 대한 효성을 극진하게 드러내었다. 유교 교육의 실천은「소학」에서 비롯된다. 「소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유교 교육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먼저 8세의 어린나이에 부친의 상을 당하자 상례를 성인처럼 지켜 이행하였다. 장성한 후에도 부친의 생신과 기제가 있는 달에는 술과 고기를 들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듯 작고한 부친에 대한 예를 엄중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스스로 “내가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하는 것은 집이 가난하여 마음에 맞게 다 헤드리지 못하였지만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고 토로하였다.

특히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황망중에 가야산으로 모친을 모시고 피난하면서 어머니를 돌보는 일과 음식을 봉양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였으므로, 주위 사람들과 스님들까지도 그의 효성에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김담수의 효행에 감복한 성주목사 許潛¹⁷⁾은 자주 고기와 양식을 보내었으며, 그를 만나면 항상 경의를 표하였다.

17) 許潛의 본관은 陽川. 자는 景亮, 호는 寒泉. 父는 생원 礎. 천거에 의하여 관직에 나가기 시작하였다. 선조 20년 繕工監奉事가 되고, 성주목사를 거쳐 동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 다시 외직으로 나가 중화부사·성천부사·개성유수 등을 역임하였다. 생활이 검소하고 처사가 공정하여 모두가 그의 공덕을 칭송하였다. 淸白吏에 녹선되었다. 시호는 貞敏이다.

다시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이번에는 기술을 이끌고 북쪽으로 피난하여 안동지방에까지 가게 되었다. 당시 그의 장남인 정풍이 예안[宣城]에서 현감으로 있었기 때문에 김담수는 이를 기피하여 노모를 장남에게 맡기고 그는 좀 떨어진 화산부 임하현으로 가서 자리 잡았다.

임진난을 당할 때만 하여도 김담수 4형제가 모두 살아서 모친과 함께 가야산 북쪽으로 피난하였는데, 그 후 仲兄 聘이 정유재란때 사망하고, 김담수가 모친을 모시고 피란하게 된 것이다. 김담수의 모친 순천박씨는 정유재란이 일어난 다음해 예안에서 향년 96세로 졸하였다. 모친이 병중일때는 약을 끓여 직접 맛을 본 후에야 어머니께 드려 병환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위 사람들을 감동케 하였다. 모친의 상을 당했을 때 김담수는 자신도 병을 앓고 있어서 初喪과 終喪때 심히 울어 기절하였을 정도였으나 상례를 집행하는데 예의가 극진하였다. 이 때 김담수의 나이도 이미 64세로서 건강하지 않은 그로서는 무리가 되는 일이었다.

김담수는 병약한 신체였지만, 매우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독서에 임하였다. 그는 일찍부터 학업에 열중하여 문을 닫고 앉아서 독서만 하였다고 한다. 자신이 심한 병을 앓고 있을 때에도 독서를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권고로 사마시에 급제하였으나,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과거에 임하지 않은 것은 학문을 출세의 도구로 삼지 않겠다는 그의 굳은 의지를 보여 준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의 건강이 과거 공부를 수행해나갈 만큼의 체력을 지니고 있지 않았던 때문이기도 한 듯하다. 그러므로 그의 독서는 조정에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관대를 차리고 경전을 탐독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늙어서도 계속하였다.

김담수의 삶은 독서를 통한 예의의 실천에 있다. 어렸을 때 「소학」을 읽다가 느낀 점이 있으면 허리를 굽혀 겸양하면서 남보다 자신을 낮출 것을 생각하였다고 한다. 길을 다닐 때에도 개미집이라도 보면 반드시 피하였다는 故事는 미물이라도 생명체를 존중하였음을 말해주고, 변소를 갔다 올 때도 하인이 밥을 먹고 있으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고사는 남에 대한 배

려를 말해 준다. 겸양과 배려, 그리고 생명존중의 사상이 서계의 유학사상의 기저를 이루며 이는 곧 <소학>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는 유학자로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효성은 극진하였지만, 모친이 巫俗을 믿고 무당에게 비는 일에 대해서는 방관할 수 없었다. 모친이 무당을 부르자 “이런 일은 참으로 허망한 일이니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여 반복해서 설득하고 도리로서 깨우치게 하였다.

그는 친우와의 교제에서도 유교적 예의를 다하였다. 진사 朴雲驥와는 한 마을에 사는 친우로서 조석으로 杏廬에서 만나지만, 전송할 때나 맞이할 때 반드시 서로 당하로 내려와 읍을 하여 예를 지켰다. 충효와 貞烈이 포상된 집 앞을 지나 갈 때나, 閔宰가 떠난 후 그의 頌德碑를 보면 반드시 경의를 표하였다. 인륜에 독실한 효행과 백성에게 혜택을 끼친 政事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것은 곧 효와 충의 기본인 것이다. 김담수의 사상의 근저는 이런 효와 충의 정신에 있다.

성주목사 허잠은 어느 날 김담수에게 묻기를 “내가 이 고을에 원이 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대의 일가는 한사람도 남에게 피소되지 않으니 어떻게 덕을 쌓아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한다. 이에 대하여 김담수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자신을 굽히기 때문” 이라고 대답하였다 한다. 사람에 대한 경외, 그리고 겸양이 김담수가 살아가는 생활 태도인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와 친척을 대할 때도 항상 은혜가 의리보다 앞서 서로 본받기를 바랐다. 실제로 가까운 친척이 서계의 선대 묘소를 넘보아 관청에 무고하여 피소된 일이 있었다. 서계는 이를 화해로 풀어갔다. 子姪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 “친척 사이에 내가 그들을 사랑할 뿐이니 어찌 숙원을 가지고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주의를 주었다. 친척간의 화목을 통해 의리를 돈독히 하고자 했고 이를 자손들에게도 경계한 것이다. 그리하여 자손에게는 “차라 리 굽어 죽더라도 의롭지 못한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라고 엄히 교육하였다. 이런 교훈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이 財利에 있어서 남과 다투지 않도록 하였다.

특히 난리를 겪은 후 사람들이 恒心이 없어지자, 자제의 교육을 엄히 하고, 비록 선행을 하지 못하더라도 남에게 악행을 하여 선조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고 경계하였다. 이웃에 대한 배려, 화목, 선행을 항상 강조하여 유교적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 시기 지방 향촌사회에서의 선비들은 바로 사회지도층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갔다고 하겠다.

2. 피난과 憂國

임진난이 일어났을 때 서계 김담수는 이미 환갑이 가까운 노인이었다. 처음 난을 당하여 김담수는 모친을 모시고 급히 가야산 북쪽으로 피난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유재란을 당하여 김담수 일가는 또 다시 피난지를 물색하게 되었다. 이번에도 역시 가야산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사정이 전과 같지 않아 훨씬 더 북으로 향하여 안동으로 피난하게 되었다. 국난을 당해 안동으로 거처를 옮긴후 그의 생활과 생각은 그가 남긴 문집 『西溪先生逸稿』에 담겨 있다.¹⁸⁾

『서계선생일고』 서문에 보면 그는 저술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다량의 글이 남아있지는 않았었던 듯하다.¹⁹⁾ 『서계선생일고』에 수록된 그의 시와 서신을 통해 서계 김담수가 겪은 피란 당시의 사정과 유린되고 있는 나라에 대한 근심의 모습을 엿볼수 있다.

18) 이 글에서 인용된 국역문은 1996년에 서계 문중에서 간행된 『西溪先生逸稿 全』에 의거하였다.

19) 『서계선생일고』가 책으로 엮어진 것은 이상정의 서문을 부친 1781년이니, 김담수의 사후 거의 180년의 세월이 지난 후다. 그러므로 그의 작품들이 많이 유실되었을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일고’에 수록된 글이 모두 안동 피란이후의 작품이고, 젊은 시절 성주시대의 글이 남아있지 않음은 애석하기 짝이 없다. 성주시대의 글은 갑자년 생원시의 疑-問云云 만 남아있다. 서계선생일고는 사실상 김담수의 생애중 1598년부터 1602년까지의 5년간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중 그가 서문을 붙인 「宣城雜詠」은 禮安시대의 작품이고, 후미의 「商星諸詠」에 포함되는 15수는 마지막 시기 尙州와 梟州에서 지은 것이다.

- (1) 왜적들은 境上에 주둔하고 있어 언제 發兵을 할지 기약이 없으므로 星州 이남과 陝川 이북 사람들이 피난할 곳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매우 민망스럽다. 體察使가 본주에 들어오므로 찾아뵈옵고 가야산성으로 들어갈 것을 알리려고 하였으나 扈祭에 구애되어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권2, 書_7 「又」)
- (2) 江左로 피난할 생각이지만 어머님이 걷기 어렵고 또 날씨도 차가워 내년 초봄에 천천히 피난을 갈 예정이다. (권2, 書_14 「答廷堅」)
- (3) 흉적들이 방자하고 독하게 합천 고령 거창 세 곳을 출몰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뜻을 굳게 갖지 못하고 짐을 지고 서서 하루에 세네번은 놀라고 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참으로 슬픈 일이다. 江左로 피난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지만 친척과 분묘를 떠날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 이 일은 결정을 앓고 있다가 지금은 적이 있는 곳이 점차 가까워 그 형세가 장차 하나도 남김없이 죽일 것 같기 때문에 가기로 결정하였다.(권2, 書_15 「答子廷龍 戊戌」)

정유재란을 당하여 왜군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과 초조에 떨면서 고향과 선산을 떠나야하는 김담수의 고민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처음에는 임진왜란때처럼 가야산으로 들어가서 난리를 피해 볼까 하면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전세는 쉽게 호전되지 않아 다시 곧 좀 더 안정된 곳으로 이동하기로 하고 江左(안동지역)으로 향할 것을 정하였으나, 친척과 墳墓를 두고 멀리 이동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주저하다가, 마침내 자칫 모두 죽임을 당할 것같이 형세가 급하게 되자 김담수는 노모를 모시고 다음해 예안으로 향하게 된다. 이 과정들에 대한 그의 안타깝고 격정스러운 마음들이 다음의 글에 나타난다. 난을 당하여 안동으로 피난을 결정하기까지 김담수는 어려운 상황을 아들에게 알렸다.

아울러 떨어져 있는 맏아들 廷龍과 넷째 아들 廷契, 다섯째 廷堅과의 서신 왕래에서 긴급한 성주의 사정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당시 김담수는 성주를 둘러싼 영남의 戰勢를 매우 상세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賊勢가 한결같이 확장되어 閑山이 수비를 잃고 그 후 沿海 諸縣이 모두 陷沒되어 지금은 이미 鼎巖에 도착되었다고 하고 이 말은 비록 행인들이 전하는 말이지만 元帥가 柿村으로 물러나가고 절도사가 桃津으로 왔다고 하니... (권2, 書_10 「又」)
- 적세가 이미 극에 달하여 한산도를 잃고 南海 昆陽 宜寧 등에 왜적이 두루 널려 있다고 하니 놀라움을 견디지 못하겠다.(권2, 書_11 「答子廷契」)
- 凶賊들은 諸邑을 함몰하고 州境을 향하기 위해 高靈으로 갔다가 我軍에게 좌절되어 누차 접진을 하였으나 그들은 누차 패하여 후퇴를 하면서 草溪 陝川 居昌 등지를 劫掠하고 곧 바로 南原으로 향하였다. (권2, 書_12 「答子廷龍」)
- 통탄할 것은 黃石이 함몰되어 郭養靜같이 훌륭한 수령이 그의 아내와 함께 피살되고 기타 諸將 수명도 함몰되었으며 南原도 또 지키지 못하여 楊摠兵이 겨우 수천 병사만 거느리고 포위망을 벗어나므로 그 적도들이 승승장구한 것이다. (권2, 書_12 「答子廷龍」)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597년 8월 이후 전황은 더욱 급박하게 진전되고 있었다. 뿐만아니라 명의 원군을 이끌고 이 지역에 온 楊摠兵(右僉都御史 楊鏞)이 초기에는 승리를 거두었으나, 왜군에게 패배를 당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들이 교만하고 게으름을 피웠음을 지적하였다.²⁰⁾ 또 영호남간의 요충인 안음 황석산성에서도 안음현감 곽준²¹⁾과 함양군수 조종도의 守城戰이 실패로 끝나 성이 함락되고 곽준이 아내와 함께 피살된 일은 김담수에게 더욱 불안감을 가져다 주었다.²²⁾

20) 『西溪先生逸稿』 권2, 서_12 「答子廷龍」, “楊大將이 처음에는 그 前鋒을 살해한 수가 얼마나 된지도 모름 만큼 많았지만, 결국 교만하고 게으름을 피운 탓으로 이렇게 패배를 당하였으니 가탄스럽다.”

21) 郭趨(1551~1597). 본관은 玄風. 자는 養靜, 호는 存齋. 정유재란 때 안음현감으로 함양군수 趙宗道와 함께 호남의 길목인 黃石山城을 지키던 중 가토(加藤清正) 휘하의 왜군과 격전을 벌이다가 아들 履常·履厚와 함께 戰死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장 金沔이 의병을 규합하니 평소에 친히 지내던 교분으로 참가하여 공을 세웠다. 관찰사 金誠一이 그의 현명함을 듣고 自如道察訪에 임명하였다. 병조참의에 추증되고, 安義의 黃巖祠, 현풍의 禮淵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忠烈이다.

결국, 김담수는 모친과 함께 피난길에 올라 어머니를 아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임하현에 머물면서 모친을 문안하게 되었다. 이 때 김담수가 64세였고, 모친이 96세였으니, 모자가 모두 노인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피난지에서 김담수의 생활은 그 곳의 유림들과 교류하며,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들에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전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한편, 자식의 학문 성취를 독려하고²³⁾, 수령으로서 직임에 충실히 할 것을 훈계하면서 남긴 시문에 잘 나타나 있다. 김담수는 선성(예산)에 우거하며 지은 시문을 이미 「宣城雜詠」으로 묶어 놓았다. 그는 선성잡영서에서 당시의 심정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였다.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날마다 더욱 심하여 연 기 긴 아침과 달이 뜬 저녁과 구름이 낀 날과 안개가 개일 때는 눈물을 흘리며 개탄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 이에 서로 알고 지낸 士君子들과 시를 지어 읊기도 하였다. 이것은 시인이 나라 걱정을 할 때 세상일을 느끼는 것과 난리가 극도에 달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뜻이다.”²⁴⁾

고향을 떠나 안전한 곳에 우거하고 있지만, 마음은 고향생각과 나라 걱정을 한시도 잊을 수 없었다. 노모를 모시고 고향을 떠나 왔으니, 어서 빨리 안정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당연한 심정이다. 유자로서 독서하며 충과 효를 몸에 익힌 그가 나라 걱정하는 것 또한 당연한 사유체계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의 憂國의 방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김담수는 당시 국정에 참여하는 대신들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왜군은 또 다시 국토를 분탕하는데, 조정에서는 당파가 나뉘어 서로 공격을 일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를 개탄하였

22) 『西溪先生逸稿』 권2, 서_12 「答子廷龍」

23) 『西溪先生逸稿』 권2, 서_12 「答子廷龍」, “날이 저물어 할 말을 다하지 못하고 廷虎에게는 편지를 하지 못하였다. 다만 그가 열심히 공부하기만을 바란다.”

24) 『西溪先生逸稿』 권2, 「宣城雜詠序」

고,25) 잠에서 깨어나 여울소리를 들으며 이 어려운 시기에 누가 나라를 구할 묘책을 내어 놓을까 한탄하기도 한다.26) 왜적을 물리칠 영웅이 없음을 그를 더욱 답답하게 한다.27) 그러나 김담수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어떤 구제책을 내놓을 수 있는 위치도 아니다.

“어떤 무장이 나라의 치욕을 씻어 줄까
글만 배운 서생에게는 좋은 묘책을 바랄 수 없네
어떤 사람이 씩씩한 장수로 나와
모든 오랑캐를 죽여 개가를 올리겠는가”(권1, 시_17 「歎禦賊無人」)

답답한 심정은 그와 오랜 인연이 있는 동강 김우옹에게 부치는 시에서 중앙의 관리로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김담수는 어렸을 때부터 같은 지역에 살며 族姪이 되는 김우옹이 벼슬을 내놓고 물러나 있을 때 그에게 시를 부쳤다. 당시 상주지역에서는 愚伏 鄭經世(1563~1633)가 경상감사로 나와 왜란으로 고갈된 민력을 보충하고 각박한 인심을 잘 다스려 민풍의 교화에 힘쓰고 있었다. 이 소문을 들은 김담수는 동강의 시를 차운하여 정경세에게 시를 보냈다.28)

마침 명나라 군사가 지원군으로 와서 조선과 명군의 합작으로 왜적을 방어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이에 어서 빨리 전공을 거두어 승리의 낭보를 듣고 싶어하는 기대를 간절하게 담고 있다.

김담수의 시 여러 곳에는 명 원군이 빨리 와서 승전의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백만의 왕사가 모두 꿈과 같아
하늘을 찌를 듯한 씩씩함이 적의 담을 놀라게 하네

25) 『西溪先生逸稿』 권1, 시_1 「時事蒼黃日...」
 26) 『西溪先生逸稿』 권1, 시_10 「聞灘聲有感」
 27) 『西溪先生逸稿』 권1, 시_17 「歎禦賊無人」
 28) 『西溪先生逸稿』 권1, 시_21 「次東岡寄巡相韻2首」

이미 청해상의 전투를 기억하였으니
그대와 함께 聖帝의 戰功을 비네 (권1, 시_18 「聞天將東征喜而有詠」)

- 요즈음 동남지방 소식이 어찌 되었는가
팔장을 끼고 하늘을 향해 어려운 국사를 구해 주도록 축원하였네
어느 때나 海寇를 섬멸하여
앉아서도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권1, 시_78 「天將方
圍海寇...」)

이렇게 간절히 明軍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상 명 군사들이 주둔하면서 일으키는 폐해 또한 원성을 불러 일으켰다. 이미 명군의 지원 요청을 결정할 때부터 우려했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김담수도 명 지원군의 楊總兵처럼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폐해만 남긴 사례를 걱정하면서도 좀 더 큰 시각에서 명 군사의 지원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조선의 명운을 부지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유럽의 명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 그 후 花山에서 적의 동향을 탐문해 보니 그들은 이미 물러갔다고 합니다. 아마 그들은 많은 天兵이 오는 것을 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聖天子께서 小國을 걱정하신 그 은혜는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권2, 서_1 「答金惇徐(富倫) 戊戌」)
- 사람이 죽지않고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은 皇天의 은혜이다. 그리고 天兵의 괴롭힘이 이미 심하나 有識者들은 만리길에 와서 구한 것을 덕으로 여기고 있지만, 무지한 백성들은 매우 원망을 하고 있다. (권2, 서_15 「答子廷龍」)

여기서 당시 조선 양반의 명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볼 수 있다. 원정군의 주둔이 실질적으로 온갖 폐단을 가져와 백성들의 원성을 높이는 일을 사실상 알면서도, 명황제가 군사를 보내준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덕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병자호란을 겪고 명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조선에서는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승정 연호를 계속 사용하는 상황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한편 왜군의 재침에 대비해서 조선은 自守 防禦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산성 중심의 방어 및 淸野戰이 일본의 재침에 대비하는 조정의 기본 전략이 되었다. 이에 따라 영호남에서 산성 수축이 진행되었다. 영남에서는 郭再祐의 의견에 따라 가야산의 龍起山城 등을 쌓아 선조 28년(1595) 6월까지 수축한 산성이 많아졌으므로 조정에서는 추곡을 수납하여 이들 산성에 쌓아 두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산성수축은 각 지역의 수령과 유생의 협조하에 진행되었다. 김담수는 지역 유사들과 함께 宗智山성 수축에 참여하였고, 또 가야산성을 개축하도록 건의하고 倮溪, 冶爐 등의 미완치를 보완하도록 하였다.²⁹⁾

3. 鄉愁와 가족애

정유재란의 위급한 상황에서 노모를 모시고 예안으로 옮긴 그는 고향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눈물뿌린 날들을 시로 표현하였다. 90여편의 시 중에 상당부분이 고향 생각을 나타낸 것이고 타향에서 살게 된 괴로움은 시국에 대한 걱정과 함께 언젠가 고향에 돌아갈 생각으로 가득하다. 더구나 기제일이 되면 고향 생각에 더욱 슬프고, 여름이 되면 더위속에서 고향 생각이 더욱 간절해져 참을 수가 없게 된다. 다음에 향수에 젖은 그의 시 몇 편을 보기로 하자.

- 여탑에 시원한 바람 불더니
 쓸쓸한 가을비 소리 들리는데
 천애에 수척한 나그네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여 잠 못 이루네(권1, 시_3 「次次兒韻」)

- 나뭇가지 위에서 두견새 울어대니

29) 『西溪先生逸稿』 권2, 서_8 「又」

갑자기 고향생각이 나서 마음이 슬프네
어찌하야 흥분을 다 쓰러버리고
살아서 어머님을 모시고 倮溪 서쪽으로 돌아갈까 (권1, 시_51 「聞杜鵑」)

- 아득한 세상 일에 백가지 중 한가지도 잘한 것이 없어
가을이 되면서부터 고향 꿈을 더 꾸는구나
어느 때나 어머님을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가
四友堂 앞에서 비단 옷 입고 춤을 출까 (권1, 시_60 「夢述一絶...」)

위의 시에서 보이는 간절한 귀향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예안으로 옮긴 해 겨울에 노모가 별세하고 이어 3년을 상주에서 상기를 마친 후 죽암 마을에 정주하게 된 것이다. 말년에 선산에 성묘차 성주에 간 것은 그가 그렇게도 소원하던 귀향이 아니었다. 이 곳에서 병을 얻은 서계는 고향땅 성주에서 永眠하였고, 다시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 상주에 묻혔다.

고향 생각과 함께 그는 헤어져 있는 가족들에 진한 사랑과 그리움을 시와 편지로 보여주고 있다. 또 전란중에 伯兄을 잃고 이어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이 모두 死去함에 외로움은 더해만 갔다.

- 作故 때도 永訣 못하고 땀을 해도 의지할 곳 없으니
이 孑孑單身의 애통은 날로 더하는구나
갑자기 꿈 속에서 만나 옛날 처럼 즐겁더니
꿈에서 깨어난 후 깜짝 놀라 눈물 흘리네(권1, 시_65 「夢見伯兄因感有述」)

- 옛날 倮山에서 피난할 때
우리 사형제가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 생각해 보면 나혼자 남아
가을 바람에 무수한 슬픔을 견딜 수 없네(권1, 시_70 「昔在壬辰兄弟四人...」)

그러나 아들에 대한 글에서는 자애의 사랑이 묻어나는 세심한 배려와 함께 행동과 교육에 근엄함을 더하였다.

김담수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通鑑」을 읽고 있는 정견에게 더욱 공부에 매진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장남 정룡에게는 항상 그가 수행하고 있는 직책에 대한 조언과 훈계를 잊지 않으며, 관리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모범을 보이도록 끊임없이 권면하였다. 아직 공부중인 정견, 그리고 정호와 기타 자손에게 대한 걱정은 시와 편지로 나타난다. 큰아들 정룡에게는 현감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갖어야 할 자세를 훈계하고, 아들의 치적에 도움이 되도록 그가 들은 주변의 정세를 일일이 알리고 있으며, 食物이 모자라거나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부족한 것을 호소하며, 벼루등도 제대로 없는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무를 수행하는데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것을 우려하여 극히 제어하고 주변에서 아들에게 청탁을 요청하면, 아들의 직책에 대해 부형이 간섭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또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다른 사람의 비방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근신하여 자신을 수양하고 말을 삼가도록 경계하였다. 특히 정룡의 성품과 지조가 강하므로 상관에게 욕을 당하면 그의 강개한 성격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몰라, 이를 걱정하여 성질을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다.³⁰⁾

무릇 관리의 도리는 愛民을 위주로 해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공평 정직 청렴 평형을 버금으로 해서 分憂의 重責에 열중하고 있으니 천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또 그 고을은 비록 작지만 文鄉이므로 훌륭한 선비들에게 그 邑弊를 물어 약한 백성으로 하여금 愛育의 교화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내가 誠信이 있어야 백성들이 즐거워 할 것이니 백변 근신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야만 될 것이다.(권2, 서_3 「答子廷龍 爲禮安倅 丙申」)

김담수는 아들에게 수령의 도리 다섯가지를 강조하였다. 첫째 愛民하라, 둘째 공평, 정직, 청렴, 평형으로 책임을 다하라. 셋째 고을의 선비들에게 읍의 폐단을 물어 교화를 받도록 하라. 넷째 근신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라. 다섯째 인재 얻기를 힘쓰고 본받으라. 특히 지역에 사는 유사를 찾아가

30) 『西溪先生逸稿』 권1, 시_75 「長兒賦性耿介遭兵使之辱...」

권고를 받을 것을 강조하여 김담수와 평소에 교유가 있는 趙陝川, 月川 趙穆, 윤생원을 찾아가 敎示를 받도록 하였다.

김담수의 가족 사랑은 엄격한 교육과 훈계를 통해서 자상하게 나타난다. 또 관리 생활하는 자식에게 陋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처신을 단속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살림을 가능한 참으며, 오직 공정하고 청렴한 관리가 되도록 끊임없이 훈계하였다. 이러한 교훈의 영향으로 후에 아들 정룡이 효를 이어받아 일생동안 『소학』에 전념하는 인물이 되었고, 정견은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躋述, 躋經世를 따라 일생동안 도학에 뜻을 둔 인물이 되었다.

V. 師承 및 交遊

성주지역은 우도의 학풍과 좌도의 학문이 통섭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김담수의 학문 성취에는 성주 지역을 근거로 활동한 퇴계 이황의 문인이나 합천 지역에서 학문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남명의 문인의 영향을 함께 받고 있다.

김담수는 10세 무렵부터 어머니의 권유로 독서에 열중하였다. 부친 김관석이 생존해 있을 때부터 배움을 시작하였는데, 을사사화 이후 이 지방 출신 관료인 默齋 李文樾(1494~1567)이 이 곳에 유배와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김담수는 사마시에 급제하기까지 목재 이문건에게서 오래 가르침을 받았다.

20세에 德溪 吳健(1521~1574)³¹⁾의 문하에 나갔다. 오건은 남명 조식의

31) 오건의 본관은 咸陽. 자는 子強 호는 德溪이다. 조부는 吳軾이고, 父는 吳世紀이며, 母는 星州 都氏로 훈도 都永康의 딸이다. 14세 때부터 經·子·史에 몰두했으나 집이 가난해 선생을 모실 수 없었다. 홀로 「중용」을 수백 번 반복 연마해 통달하고 「대학」·「논어」·「맹자」 등도 연구하였다. 이조좌랑으로 있으면서 춘추관기사관을 겸해 『명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經筵에서 학문의 길은 窮理와 居敬에 있다고 논했으며, 소를 올려 학문을 진흥시키고 간쟁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였다. 관직을 버리고 경상도 산음 德溪里로 낙향하였다. 여러 차례 조정에서 불렀으나 모두 거절하고 晝史를 섭렵하면서 詩作과 강론으로 여생을 마쳤다. 문인들이 ‘德溪先生’이라 불렀으

문인으로 당시 성주향교의 교관으로 부임하였다. 曹植이 德山洞에서 강론하자 문인으로 수학했으며, 金麟厚·이황의 문인이기도 하다. 이황도 그의 학문이 정밀하고 심오함을 칭찬하였다. 김담수가 오건의 문하에서 수학한 것은 오건이 아직 문과에 급제하기 전 1555년 경의 일이다. 김담수는 오건에게서 『심경』과 『근사록』을 공부하였다. 조금 후 26세 때는 성주목사로 부임한 황준량에게서 수학하였다. 黃俊良(1517~1563)³²⁾은 퇴계 이황의 문인으로 權知成均館學諭로 임명되었고, 1560년 성주목사로 나가서 迎鳳書院의 중수, 문묘의 중수, 그리고 孔谷書堂·鹿峰精舍 등의 건립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 지방의 학자 오건을 교관으로 삼는 등 교육진흥에 힘써 학자를 많이 배출하였다. 김담수는 황준량에게서 『중용』과 『대학』을 공부하였다.

이렇게 젊은 시절 이미 김담수는 남명의 고제와 퇴계의 문생에게서 교육을 받았으므로, 그의 학문은 낙동강을 경계로 한 江右와 江左의 학풍을 통섭하는 면모를 보이게 됨은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김담수가 생존하던 시기 성주지역에는 “兩岡”으로 별칭되는 동강 김우옹과 한강 정구가 학문을 주도하고 있는 시기였다. 동강 김우옹은 같은 의성김씨로 성주 사월 출신이다. 김담수와는 15대조인 金宗師의 아들 貴孫과 季孫 형제이후 갈라진 분파이다. 김담수보다 5년 연하이지만, 일찌기 1558년(명종 13년) 19살에 진사가 되고 1567년(선조 1년), 28살 때 식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김우옹이 본격적으로 관직활동을 시작한 것은 1573년(선조 6년)부터이다. 한림으로 천거되고, 이후 홍문관 정자로서 入侍하여 수

며, 산천의 西溪書院에 제향되었다. 『덕계문집』, 『丁卯日記』 등이 있다.

32) 황준량의 본관은 平海. 자는 仲擧, 호는 錦溪. 사문서주부 黃永孫의 증손으로, 조부는 黃孝童이고, 父는 黃鰲이다. 1542년 성균관 학유가 되고, 이듬해 學錄으로 승진되었으며, 양현고봉사를 겸하였다. 공조좌랑에 재직중 상을 당해 3년간 시묘한 뒤 전직에 복직되었다. 1560년 성주목사에 임명되어 재임하다가 1563년 봄에 병으로 사직하고 돌아오는 도중 예천에서 졸하였다. 현감으로 지방 정치를 하면서 진흥과 학교 교육, 문묘 수축, 서원 창설등 치적을 많이 남겼다. 우애가 돈독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힘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청빈한 생활을 하였다. 풍기의 遇谷書院, 신녕의 백학서원에 제향되었다. 『금계집』이 있다.

찬 부수찬으로 있으면서 자주 왕의 경연에 참여하였다. 경연에서는 李珣과 함께 聖學과 人心道心說 등을 강론하였고 임금이 모범을 세워 백성을 이끌어야 하며, 제왕의 도를 닦을 것을 극진히 강설하였다. 특히 그는 스승 조식의 학문을 소개하거나 鄭述를 천거하기도 하였다.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김우옹은 지구전보다 결사전을 펼칠 것을 주장하였고 그 해 9월에는 대사성으로서 한강 방어에 계책을 왕께 아뢰었다. 그러나 1599년 이후 1602년까지는 그에게 제수된 관직을 대부분 사양하고 실제 나가지 않았다.

왜란의 급박한 상황에서 김담수는 중앙에서 경연에 참여하였던 동강 김우옹에게 국난을 헤쳐나갈 대책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帷幄속에서 秘策을 강구하니
渤溟 마을에는 장차 奇功이 새겨지더라
위기에 처해 싸움 삼가는 것은 우리 儒士의 일이니
정신을 가다듬어 장한 피를 세워야지(권1, 시_19 「寄金東岡」)

한강 정구³³⁾는 오견에게서 함께 수학한 동문으로서 김담수의 만사를 지었다.

다행히 당신과 함께 이 나라에 태어나
같은 학문을 하면서 마음을 알아주었고
道義를 추대하여 重望이 있었지만,
어려운 때를 당하여 인사를 어기었구려

33) 鄭述(1543~1620)의 호는 寒岡. 부는 金宏弼의 외증손으로 忠佐衛 副司孟 鄭思中이며, 어머니는 星州李氏로 煥의 딸이다. 본래 공신가문으로 대체로 한양에서 살았으나 부친이 성주이씨와 혼인하면서 성주에 정착하였다. 10세에 「대학」과 「논어」의 대의를 이해하였고, 13세때 성주향교 교수인 吳健에게 역학을 배웠는데 乾·坤 두卦만 배우고 나머지 卦는 유추해 스스로 깨달았다 한다. 이황과 조식을 찾아뵙고 스승으로 삼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通川郡守로 재직하면서 의병을 일으켜 활약하였다. 성리학파 예학뿐만 아니라 제자백가·역사·算數·兵陳·醫藥·卜筮·풍수지리 등 여러 방면에 걸쳐 박학하였다. 그는 이황학파의 주자를 기반으로 한 학문적 전통과 서경덕·조식학파의 博學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중략)

젊은 감과 신 배를 누가 좋아했든가

나이 젊은 시절부터 친하게 알았는데

만년에 서로 헤어졌다가 또 永訣을 하였으니

이 날에 새벽별이 되니 슬픔 견딜 수 없구나(寒岡 鄭述, 『西溪先生逸稿』 권 3, 「輓詞」)

정구는 김담수가 학문을 같이하며 서로 뜻이 통하였고, 젊은 시절 친하게 지낸 친구가 영결하게 된 슬픔을 애절하게 표현하였다. 김담수가 사마시 이후 과거를 포기한 것처럼, 한강 정구도 1563년 향시에 합격하였으나 이후 과거를 포기하고 학문 연구에 전념한 것은 이들의 학문태도가 같은 방향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강 정구는 중앙에 관직으로 나간 동강 김우옹이 추천하여 예빈시참봉에 임명하였으나 이를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으나. 후에는 여러 지방 관직에도 나아가고 특히 안동부사로 부임하여 이황의 저술의 정리 사업, 서책의 발간 등에 노력하며 사림들의 학업을 권면하고 학풍을 진작 시키는데 그че 기여하였다.

위의 든 인사들 외에 李淳(1530~1606)³⁴, 宋遠器(1548~1615)³⁵, 朴廷璠(1550~1611)³⁶, 陶村 曹應仁(1556~1624)³⁷, 李天培³⁸ 등 여러 문사들

34) 李淳은 김담수와 평생 지기였다. 본관은 鐵城. 자는 子眞, 호는 野老이다. 김담수는 피난지에서 이순을 생각하며 그리움의 시를 썼다. 이순은 김담수의 장례에 만사와 제문을 남겼다.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이다. 이순은 일찍이 이황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김우옹·정구 등과 道義로 교우관계를 맺었다. 임진왜란 때에는 召募將으로 의병을 모집, 왜적과 싸웠다. 만년에는 堅谷村에 별장을 짓고 遯世의 뜻을 지켰다. 성주의 柳溪書院에 제향되었고, 저서로 『야로당문집』이 있다.

35) 송원기는 한강 정구의 문인으로 본관은 冶爐. 자는 學懋, 호는 啞軒이다. 宋應奎이고, 父는 宋師顛이며, 처부는 李潤이다. 1603년 계묘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610년 別試 병과 14등으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啞軒文集』을 남겼다.

36) 박정번의 본관은 高靈. 자는 君臣, 호는 鶴巖이다. 임진왜란 때는 형 廷琬과 더불어 왜구와 대항하여 싸웠다. 왜란이 끝나고 공을 논할 때 자신의 공적은 드러내지 않고 형만을 내세우는 덕성이 있었다. 1605년부터는 당대의 유명한 학자인 정구·장현광 등과 더불어 「심경」을 가르치며 후진양성에 힘썼다. 김담수의 姻戚으로 자주 교유가 있었다. 현감을 지낸 박정완도 제문을 올렸다.

이 김담수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였다. 김담수의 서거를 애도한 이들은 대부분 젊었을 때부터 함께 공부하던 유자들로 위의 인물들은 성주 합천 지역에서 이황의 문인이나 조식의 문인으로서 김우옹, 정구 등과 함께 교류하면서 학문을 심화시켜왔던 사람들이다.

정유재란 이후 안동에 우거하면서 김담수는 퇴계의 학맥을 잇는 문인들과 더욱 친밀한 교류를 할 수 있었다. 월천 조목, 성성재 금난수, 면진재 금응훈, 전식, 설월당 김부륜 등이 그들이다.

趙穆(1524~1606)의 본관은 橫城. 자는 士敬, 호는 月川이다. 15세 때 李滉의 문하생으로 들어가서 학업에 더욱 정진하였다. 23세에 어머니 상을 당했는데, 효심이 지극해 이황은 대성할 그릇이 약관으로 몸을 상하지나 않을까 염려할 정도였다. 1552년(명종 7) 생원시에 합격했으며, 大科는 포기하고 獨善一身에만 매진하였다. 그는 親民보다 明德을 중시해 벼슬은 사양하고 玄沙寺·廣興寺에 들어가 독서를 즐겼다. 퇴계를 수행하며 명산대천을 주유하면서 심신을 수양했고, 경학을 연찬하되 이기설보다는 훈고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心學에 심취해 「心經」에 관한 논설이 많다. 그는 이황과 동향인 예안에서 출생, 성장하면서 일찍 이황의 문하생이 된 후 일생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스승을 모신 八高弟의 한 사람이다. 조목은 김담수보다 10년 연상의 선배로서 그를 만나 학문을 논함으로써 어지러운 시국과 타향의 외로움을 달래었다. 평생을 청빈하게 지내면서 온후, 겸양, 독실한 실천을 지향하였다.

琴蘭秀(1530~1604)의 호는 惺齋 또는 孤山主人이다. 봉화 출생으로 손위 처남인 月川 趙穆의 권유로 퇴계 이황의 문하에 들었고 이황과는 인척 관계에 있다. 학행을 겸한 청빈한 선비이자 자연을 완상하는 감성을 아우른 인물로 임진왜란 때에는 수성장으로서 항병을 모으고 군량을 조달하는 등 국난

-
- 37) 陶村 曹應仁은 창녕인으로 김담수의 처남이 된다. 일찍이 김담수가 장인 조몽길의 사후 합천 처가에서 어린 자제들을 돌보며 10년을 살림을 주관하였기 때문에 관계가 특별하다. 조응인은 임진왜란때 창의하였으며, 효행으로 천거되어 왕자사부가 되었다. 만사에는 스승 조식을 모시고 함께 공부하였던 일을 언급하였다.
- 38) 李天培는 아우 李天封과 함께 정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시문집으로 『삼익재문집』을 남겼다. 그의 제문에는 西溪와 한강 정구와의 교류를 강조하였다.

극복에 앞장서는 실천적인 삶을 살았다. 금난수와 의 唱酬은 그의 孤山亭을 방문하여 지은 시로부터³⁹⁾ 금난수가 김담수를 방문한 것에 대해 사례하는 시 등 교유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⁴⁰⁾

金富倫(1531~1598)의 본관은 光山. 자는 惇敍. 호는 雪月堂. 아버지는 생원 金綏이며, 어머니는 順天金氏로 粹洪의 딸이다. 예안 오천에 살았다.⁴¹⁾ 퇴계의 문인으로 遺逸로 천거되어 集慶殿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가산을 털어 鄉兵을 도왔고, 봉화현감이 도망가자 假縣監이 되어 선무에 힘썼다. 「대학」과 「心境」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예학에 대해서도 사우간에 많은 질의가 있었다. 저서로는 『설월당집』 6권이 있다.

琴應燠(1540~1616)의 본관은 奉化. 자는 燠之, 호는 勉進齋이다. 아버지는 訓導 琴粹이며, 어머니는 金孝廬의 딸이다. 李滉의 문인이며, 柳成龍·趙穆과 교유하였다. 임진왜란시에는 의병에 참여하였다.⁴²⁾ 1594년 학행에 의하여 영의정 유성룡 등의 천거를 받아 宗廟署副奉事에 제수되었다. 1601년 의홍현감에 제수되었으나, 유성룡과 조목의 요청에 따라 사직하고 『퇴계선생문집』 간행실무자로 참여하였다. 외관시에는 선정으로 명망이 높았고, 퇴관해서는 후진교육에 전력해 큰 성과가 있었다. 김부륜의 고종으로서 이들은 함께 시를 창수하였고 왕래가 있었다.⁴³⁾

이제까지 본 안동지역에서 교유한 유사들은 모두 퇴계 이황의 문인이다.⁴⁴⁾

39) 『西溪先生逸稿』 권1, 시_7 「고산정」

40) 『西溪先生逸稿』 권1, 시_25 「到縣憶孤山」, 시_26 「次叢巖韻謝琴惲惲齋問遠見訪」

41) 김부륜과 아우 金富信, 4촌 金富弼, 金富儀, 金富仁, 고종 金응훈·琴應夾과 한 동네에 살면서 학문을 토론하고 덕업을 권장하여 향리에서는 ‘烏川七君子’라 칭송되었다.

42) 『연려실기술』 17, 선조조고사본말 영남의병; 趙慶男, 『亂中雜錄』 二 선조 25년(1592) 8월 16일

43) 『西溪先生逸稿』 권1, 시_22 「官亭遇金惇敍(富倫 號 雪月堂)琴燠之(應燠 號 勉進齋)因述奉寄 2首」

44) 퇴계선생의 상사에 ...문생들은 모두 검은 관에 흰 옷띠로 중사하였다. 金富弼, 金富儀, 金富倫, 趙穆, 琴應夾, 琴應燠, 琴蘭秀 등은 다 흰 띠와 素食으로 소상을 지냈다.(『

이 외에 尹芝嶺(尹義貞, 1525-1612)은 산사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이다. 琴景(1553~?)의 호는 彥覺으로 성재 금난수의 아들이다. 1597 정유재란때 광재우가 있는 火旺山城으로 가서 싸움에 참여하였다. 조목, 安村 배응경 등과 퇴계의 문집을 교정하는데 참여하였다. 裴洗馬는 裴龍吉을 말하는데 임진왜란때 배용길은 경상도 안동 선비들이 의병을 일으켰을 때 진사로서 副將이 되어 함께 참여하였다.⁴⁵⁾ 金士源도 역시 성주에서 함께 하던 친구로서 금계 황준량에게 함께 수업한 연상의 인물이다.

이상, 김담수의 사승관계나 교유관계로 보면, 김담수는 16세기 후반의 성주를 대표하는 학자, 동강 김우옹 한강 정구를 비롯하여, 남명 조식의 훈도를 받았으며, 후에는 안동 예안에서 퇴계 이황의 고제들과 중유하므로써, 퇴계학파의 주류에 연결되므로써, 강우학과 강좌학을 통섭하는 위치에 있다. 특히 그가 중유한 학자들 대부분이 당시 또는 이후에 중앙에서 관리로 활약한 인물도 있지만, 학문에 전념하여 유학자로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주류를 이룬 것을 볼 때, ‘遺逸’ ‘處士’ 등으로 불리우는 영남 사림의 고풍을 알 수 있다.

VI. 나오는 말

16세기 이후 사림들은 정계에 나아가 정국을 주도하는 관료가 되거나, 한편으로 자아 성찰과 후진 양성을 중심으로 재야에서 활동하는 학자로 나누어진다. 특히 임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사림은 직접 백성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키거나, 전쟁을 지원하는 일에 참여하면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우국 충정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서계 김담수는 후자에 속한 사림으로서 그의 행적에 대해서 한강 정구, 월

퇴계집』 언행록 5, 類編 考終記)

45) 『亂中雜錄』二, 임진년, 선조 25년 8월 16일

사 이정구, 야로 이순 등은 학문에 밝고 실천에 힘썼으며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은거처사로서 살았던 지조있는 선비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대산 이상정은 이익보다는 의리를 중히 여기고 가족과 친족 이웃과 화목했으며 실천을 중시하며 스스로를 수양하는 군자다운 사람으로 평하였다. 그는 남명 조식과 퇴계 이황의 학통을 모두 이어받아 이론적 경향과 실천적 측면을 동시에 흡수하였다.

서계 김담수가 남긴 『서계선생일고』는 바로 이 시기 재야 성리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란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위기의 국가 상황에서 보여주는 우국과 효도, 애민과 가족 사랑, 그리고 전란중의 위급한 상황에 대한 분석과 명군과의 관계 등이 유학자의 눈으로 차분히 기록되어 있는 의미있는 사료이다. 이 사료를 통해서 재야 성리학자로서의 생애와 학문, 문학적 성격, 그리고 임란 당시 성주를 중심으로 한 江岸 지역의 정황, 유림들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분연히 일어나 평소 배운 학문을 실천한 목민관으로서의 진실된 모습과 학덕을 겸비한 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유자들의 본 모습이지만, 서계 김담수는 연령으로 보아도 이미 몸소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지난 노년에 접어든 선비이고, 건강도 또한 받쳐주지 않는 상황하에서, 부모에 대한 효, 자식에 대한 애정과 훈계, 현실과 정국에 대한 걱정 등을 통해서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은 儒者의 올곧은 선비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김담수는 일찍이 이문건과 오건, 황준량 등 성주지역의 유학자들에게 훈도 받았으며, 장성하여서는 합천에 오래동안 거주하므로 조식의 학문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피난으로 예안지역으로 옮긴 후에는 퇴계의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학문적 온축을 더하였으니, 양대 학맥을 모두 수용한 유학자로 볼 수 있겠다. 한편 성주의 兩岡이라고 일컬어지는 寒岡 鄭述와의 친분이 두터웠으며, 東岡 金宇顛과는 친족으로서 유학의 선배로서 교류를 갖어 ‘영남학’의 분류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인물이다.

서계와 그의 후계자들은 유교의 덕목과 선비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갔다. 그들의 은일적인 삶과 학문은 낙동강을 중심으로하는 강안학파의 주류를 이끌어 가며 실천적 유학의 면모를 보여주므로서 이런 분위기에서 실학이 배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이 논문은 2017년 7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8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9월 1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김담수 저, 김종희 역, 『西溪先生逸稿 全』, 1996.
- 김담수 저, 박미경 역, 『국역서계선생일고』, 한국국학진흥원, 2004
- 김동필 저, 박미경 옮김, 『목암문집』 1, 2, 한국국학진흥원, 2016W
- 김우웅, 『동강집』
- 김정룡 김정건 저, 김병록 등 역, 『국역월담국원양선생 연방일고』, 경목재, 2015
- 의성김씨대동보편찬위원회, 『의성김씨대동보』, 1992
- 설석규, 「강안학파의 실학적 풍모를 지킨 徵士 -서계 김담수 -」, 『선비문화』
12, 남명학연구원, 2007
- 정우락, 「서계 김담수의 전쟁체험과 그 문학적 대응」,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5
- 정우락, 「목암문집 해제」, 『목암문집』 1, 한국국학진흥원, 2016

Abstract

A Study about Seugye(西溪) Kim Dam-su(金聘壽) in Sang-ju(尙州)

Koh, He-ryung

Euisung(義城) Kim Family is one of large families settled down in Sang-ju District.

Seugye(서계) Kim Dam-su(김담수) is the root of Euisung Kim Family in Sang-ju. This essay is about family tree of Euisung Kim family in Sang-ju, the life and thinking of Kim Dam-su.

Kim Dam-su is an intellectual person but he didn't be in a government official. He passed the low-level civil service examination at the age of 30 years old. But he made a decision not to apply for a higher-level examination. And he strived for concentrating on Confucianism.

Such scholars - Yi Moon-geun(李文楨), Oh Geun(吳健), Whang Jun-ryang(黃俊良) - are become his teachers for the study of Confucianism. He had been influenced by the Confucianism theory of Nammyung Cho Sik(南冥 曹植) as much as of Toekye Yi Whang(退溪 李滉). His life and learning on Confucianism gave a moral influence to his sons and other people.

At the time of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he evacuated to Kaya mountain with his mother, who was very old(over 90 years old). He took care of his mother with devotion.

During the 7 years war of Japanese invasion, he wrote many poems

and letters to his sons. In the letters he had described his worryness on the livelihood of the people, refuge and his anxiety about his sons. And he described on his missing home and parted with family in his phrases.

His first son Jeung-ryong(廷龍) was a civil service. Kim Jeung-ryong had passed the civil examination and he served the governor(縣監) of Ye-an(禮安) area at that time. Kim Dam-su avoid to stay in the district of Ye-an in order not to be implicated.

Kim Dam-su has been appreciated to be a hermit Confucianist of faithful, fidelity. And he was dutiful son and a intellect fulfilled the Confucian virtue.

Kim Dam-su was a sample of Confucian scholar(선비) in the Nakdong riverside area.

key words : Kim Dam-su, Euisung(義城) Kim Family, Sang-ju, hermit Confucian, Japanese invasion of Korea, the 7 years war of Japanese invasion(임진왜란)

